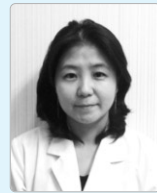




## 유럽 소동물 수의산과학회 (EVSSAR)를 다녀와서...



김혜진  
해마루동물병원  
tingee75@hanmail.net

소동물 산과진료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저는 외과학회, 안과학회, 방사선학회, 응급의학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학술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산과에 관련된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증례를 접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소동물 산과학회가 2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꼭 참석해보고 싶어 증례 포스터 발표를 준비하여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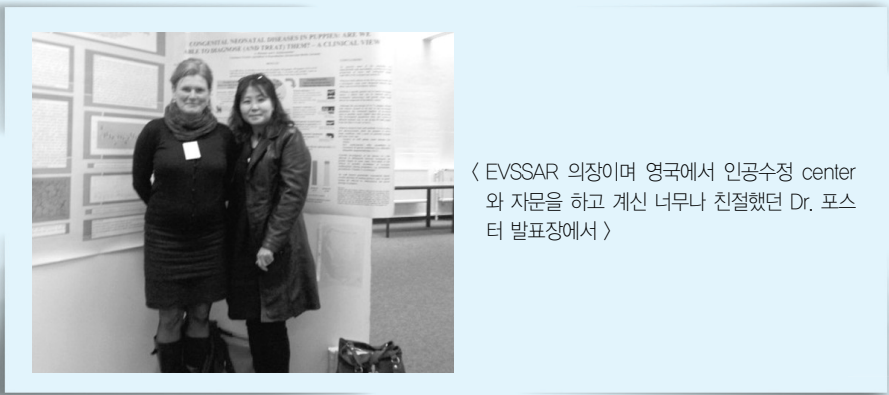
### 학회장에 도착하기 까지...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산과수의사들을 만나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오랜만에 아줌마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겠다는 발칙한 상상에 마냥 즐겁고 설레었으나, 점점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난생 처음가보는 유럽을 그것도 학회참여로 간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한국에서도 길눈이 어두워 고생이 많은 터라 미리 구할 수 있는 지도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국내에서는 벨기에까지 직항노선이 없어 프랑스를 경유하여 TGV를 타고 벨기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기온이 낮은 것은 알았지만 5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에 (이상기후였다고 합니다) 하늘은 계속 흐린 날만 계속되어 한국의 화창한 5월의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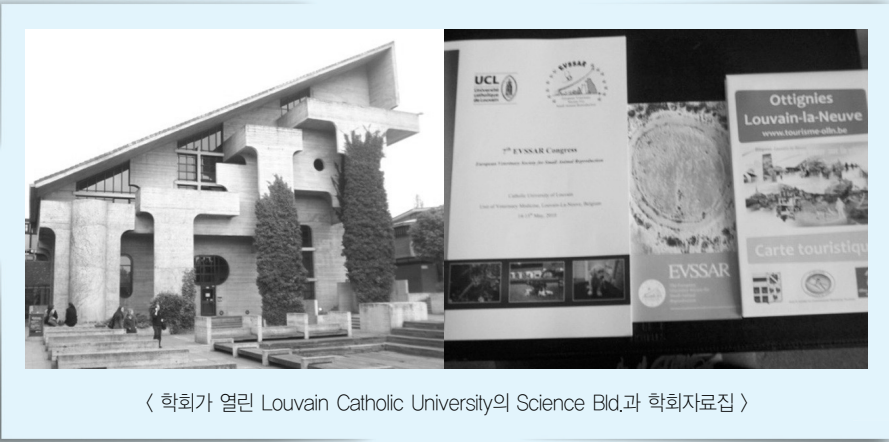
프랑스는 불어를 벨기에에는 불어와 네덜란드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 간판이나 안내서에 영어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차표 한 장 기계로 뽑는 것이 mission에 가까웠으나 점차 눈치껏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넣어두면서 학회 전까지의 짧은 자유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 이번에 다녀온 유럽 소동물 산과학회는?

European Veterinary Society for Small Animal Reproduction (EVSSAR)은 유럽지역의 소동물산과수의사들이 소동물, 실험동물, 애완동물, 신생아의 산과진료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비영리 모임입니다. 1998년 바르셀로나에서 1차 congress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2일 동안 개최되어 유럽지역의 소동물 산과진료의 경향이나 인공수정 현황, 새로운 약물치료방법, 수술방법의 소개, 신생아질환, 새로운 증례와 실험관련 포스터 발표를 하는 congress를 개최하며, Congress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1일간 symposium을 개최하여 산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7회째 인 이번 2010년 congress는 초콜릿과 와플, 오줌싸개 동상으로 유명한 벨기에의 북동부 지역인 Louvain Catholic University 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북 남미, 일본, 태국 등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 이어서 저와 충남대 최호정 교수님은 환영사에서 'Korea'가 호명되면서 손을 번쩍 들고 인사를 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학회의 규모는 참가자가 200명 정도 되는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가족적인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학회였습니다.



〈 EVSSAR 의장이며 영국에서 인공수정 center와 지문을 하고 계신 너무나 친절했던 Dr. 포스터 발표장에서 〉



〈 학회가 열린 Louvain Catholic University의 Science Bld.과 학회자료집 〉

### 학술대회의 내용은?

7회 EVSSAR congress는 2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날 호텔에서 학회장으로 가는 셔틀을 타고 약 45분간을 달려 벨기에 북동부에 있는 Louvain university에 도착하였습니다. 학교는 매우 넓게 위치하고 있어 마을과 학교의 경계가 없으며 학교 안으로 기차역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였으며 건물 하나하나에 건축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만큼 각각 특색이 있고 예술작품 같은 건물이 많았습니다.

첫 강의는 스웨덴 대학의 Catharina Linde Forsberg 산과 교수님께서 2000여건이 넘는 인공 수정 증례의 회고정리와 현재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수정방법들의 현황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논문으로만 접하고 꼭 한 번 뵙고 싶었던 분을 직접 눈앞에서 뵙 수 있어 더 뜻 깊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Zambelli교수님의 고양이 정액채취와 인공수정, 정액 동결에 대한 강의 역시 저의 전공과 관련하여 무척 흥미 있는 강의였으며 도전과제를 받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항생제 남용 문제나 배아의 체외배양 등에 관한 최신 연구들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Deslorelin 호르몬 약물을 이용한 다양한 산과적 질환 적용 증례를 각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2~3년간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약물들의 사용이 가능한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임상적 적용을 실시하여 수컷의 화학적 거세, 암컷의 발정주기 조절, 요실금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그 치료 효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osaterone acetate제제로 수컷 개 전용으로 만들어진 약물로 전립선비대 치료를 실시한 증례 역시 현재 사용되는 인의 약물의 복용기간이 긴 것에 비해 7일간의 복용으로 6개월 정도의 지속효과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유럽 역시 중성화 수술의 비율이 8%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수술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환자에게 통증을 주지 않는 치료방법들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약물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생산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흥미 있는 주제의 증례 발표들도 이어졌으며, 포스터 session 동안은 80여 개의 다양한 임상증례나 실험논문 등이 포스터로 전시되었습니다.

해마루 동물병원에서는 질축농증(Pyocolpos)과 자궁파열(uterine rupture)에 관련한 2개의 산과 증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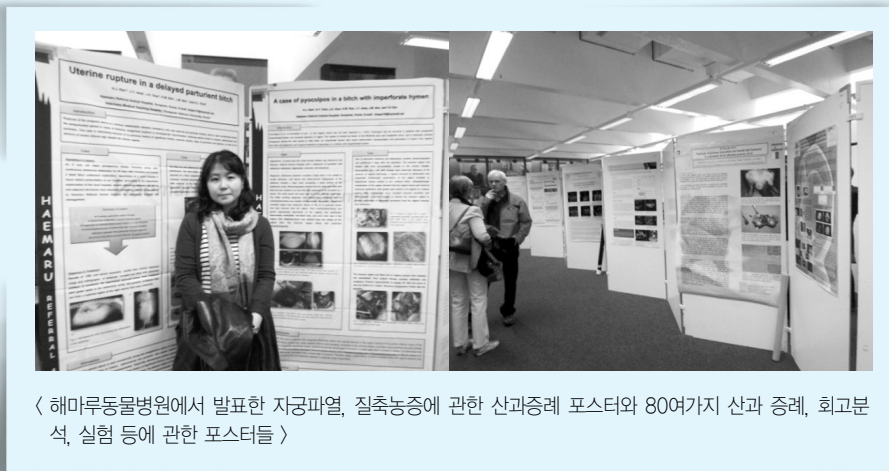
다른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충분히 읽고 싶은 증례가 있더라도 시간상 또는 다른 이유로 포스터를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몇 발표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포스터의 축소판을 A4 용지에 출력하여 포스터 옆에 걸어두고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포스터 발표자 이름 옆에 사진을 함께 넣어 질문하고 싶을 때 저자들을 찾아 물어볼 수도 있

게 만든 친절한(?) 포스터도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지역에서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친해질 수 있었던 태국의 Ponlowhapan 선생님과 Thuwanut 선생님은 유럽에서 공부를 해서 인지 다른 수의사들과의 친분이 넓었으며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어 2011년 WASAVA에 꼭 참석하여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개, 고양이 인공수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일본의 Tsutsui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아시아에서도 언젠가는 이러한 소동물 산과학회를 만들어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해보았습니다.



〈해마루동물병원에서 발표한 자궁파열, 질축농증에 관한 산과증례 포스터와 80여가지 산과 증례, 회고분석, 실험 등에 관한 포스터들〉

둘째 날은 pyometra 치료와 이후 생식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강의, canine herpes virus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벨기에의 Hans Nauwynck 교수님의 매우 열정적이고 재미있는 강의를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 동안 원인을 끝까지 밝히기 힘든 신생아의 갑작스런 죽음이나 암컷의 불임의 원인으로 많이 의심을 해왔던 herpes 바이러스에 대해 좀 더 끝까지 원인의 감별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려워해야만 할 베일에 사여진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밖에도 소아 마취, 소아 수술에 대한 강의와 유선종양, 자궁파열, 호르몬 검사를 통한 성선의 검사, 고양이 정액동결, 고환 세침흡인검사가 정액성상에 미치는 영향 등등의 short communication을 마지막으로 2일간의 congress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간 2일이라는 시간이 아쉽기도 하고 다음 번에 참가할 때는 더 많이 준비하고 영어도 능숙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다녀왔습니다



〈 벨기에의 HANS NAUMYNCK교수님의 열정적인 CANINE HERPES VIRUS강의 모습과 강의를 듣는 학회참석자들의 모습 〉

무엇 보다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직접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 수의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 있었으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 것이 이 번 학회 참여의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직업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이곳에서 만났던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에 적용하고 있는 여러 산과 수의사들을 떠올리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 학회에는 산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보며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해마루 김현욱 원장님, 함께 여행도 하고 학회에도 참가하면서 큰 힘이 되어준 충남대 최호정 교수님, 엄마 없는 동안 열심히 가정을 지킨 아들과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데 🍷 수